

티메프 피해업체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수준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- SBS biz 8월 22일 보도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내용

- SBS Biz는 8.22일자 「정부, 티메프 피해업체 대출금리 2%대로 낮춘다」 제하의 기사에서 “정부 프로그램의 금리를 앞으로 최저 2%대로 인하하기로 했다. 현재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을 위한 정부 대출은 3가지로 금리는 기업은행·신용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 3.9~4.5%인데, 최대 보증료 적용시 5.5%이고, 이외 중진공 금리는 3.40%, 소진공은 3.51%” 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- 티메프 피해업체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기관과 그 수준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,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	책임자	과 장	권유이 (02-2100-2860)
		담당자	사무관	김기태 (02-2100-2861)
	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	책임자	과 장	조성우 (044-204-7520)
		담당자	사무관	박 현 (044-204-7616)